“사회 필요치 않는 불교가 무슨 필요있나”

출가재일 발원문

일체중생의 근기 따라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지성으로 귀명하옵니다. 우리 상월결사 인도순례자들은 부처님 전에 모여 출가하신 날의 감격과 환희를 떠올리며 저희들의 서원을 담아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혹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출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욕심과 자신만의 견해에 사로잡혀 화택과 같은 집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부처님 출가의 길을 따라 장애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서원합니다.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신 부처님!

저희는 지금부터 하루하루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나태하고 안주하기보다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망설이고 두리번거리기보다 진일보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나에 갇혀 살기보다 큰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발원 공덕으로 저희들의 삶과 일체 중생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소서. 이 순례의 길 끝에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걸림이 없이 살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출가재일 앞두고 서릿발 경책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은 삼계의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가르치신 위대한 스승이지만, 태어나면서의 삶이 그렇지는 않았다. 전륜성왕의 길과 출가자의 길에서 부처님은 출가를 택했고 이후 성도하니 출가한 순간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요한 의미만큼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출가재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남달랐다. 특히 순례단의 스승인 회주 자승 스님의 경책과 격려로 좀 더 특별한 출가재일을 맞이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2월 26일 저녁예불 후 다시 대중 앞에 섰다. 회주 스님이 순례단 대중 앞에서 대중생활의 주요한 대소사를 알리기 위해 말한 적은 있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다. 출가재일을 앞두고 방일해질 수 있는 순례단의 마음을 다잡고, 순례의 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스님은 예불이 끝나자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 자승 스님은 차분하게 불교의 현실을 지적해 나갔다.

“10년 전 쯤 〈동아일보〉 칼럼에 ‘수녀님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부님, 목사님,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도 있는데 딱 꼬집어서 수녀님이 줄어든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요체는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직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밖에서 보았을 때)호화호식 하고 산다는 것 아니겠는가. 수녀님들이 사회 어두운 곳에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그 수가 줄어드니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전 읽은 한 칼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자승 스님의 경책은 단지 순례단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로 향하고 있었다.

회주 스님은 “불교의 비구, 비구니도 사회 어렵고 힘든 곳에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수행자들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불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열심히 기도한들 현재 사회는 스님들이 줄던 말던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2월 26일 저녁예불 이후 대중들을 경책했다. 다소 들뜰 수 있는 시기, 스승인 회주 스님의 서릿발 같은 경책은 들뜬 대중의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었다.

2월 26일 저녁예불서 경책 내려
“불교, 안일함에 사회 기여 못해
이젠 사회 기여하는 수행자돼야”
순례단, 출가재일 발원문 발표해



2월 27일 출가재일을 맞아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했다.

자승 스님의 경책은 이어졌다. 스님은 “우리는 사찰을 지켜나갈 후손들이 필요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둡고 힘없는 곳에 돌봐줄 손길이 절실하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다”면서 “우리들의 안일함이 잘못이다. 출가하고 여러 인연으로 인해 주지하는 사람은 주지하면서 근심걱정 없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사람은 한철 보내며 근심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경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회는 불교에게 바라는 게 없게 됐다. 이를 타개하려면 사회에 기여하는 수행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의 말 속에는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불교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출가자로서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자승 스님은 “출가재일을 앞두고 우리 순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자승 스님은 순례단의 묵언 수행에 대해서도 엄히 지적했다. 스님은 “구업을 짓지 않기 위해 하는 수행이 바로 묵언 수행”이라며 “수행은 지켜야지, 목에 묵언이라는 푯말을 걸고서 똑같이 앉아서 히히덕 거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묵언 수행인가”라고 순례단을 비판했다.

인도순례단에서는 2월 26일 묵언표를 받은 조석주 불자까지 총 6명의 스님과 재가자가 묵언수행을 하고 있다. 사르나트에서 회주 자승 스님에게 덕조 스님과 노현 스님, 백금선 불자 등 3명의 출재가자가 묵언표를 받은 후 묵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회주 스님 재가 후 묵언하고 있다. 순례가 19일차에 접어들며 대중생활 속에 이러한 발심도 다소 무뎌지기 마련, 스님은 대중이 들뜬 시점에서 가르침을 내렸다.

자승 스님은 “묵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말 섞이는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야 묵언이지, 떠들어 대는 자리에 앉아 같이 웃고 틈 나는대로 휴대폰 열어 카톡 다하고 하면 묵언 수행을 무엇하러 하는가”라고 말했다.

스님의 가르침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깨를 때리는 장군죽비와 같았다. 회주 스님의 경책에 순례단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훌륭한 스승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끝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따뜻한 격려로 용기를 북돋는다. 자승 스님은 묵언 중 피치 못하게 의사를 전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 조장에게 문자 등을 활용한 필담으로 의사를 전하라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주변에서도 묵언수행을 하는 이들을 도와달라. 다시 심기일전하여 수행 정진하자”고 대중에게 따뜻한 어조로 당부했다.

엄한 경책을 날린 회주 스님은 다시 대중들의 마음이 방일할까, 보통 예불 이후 삼배의 예로 끝내던 것을 일배만 받고 끝냈다.

순례단을 이끄는 스승의 경책이 있던 차라 순례단의 2월 27일 행선은 달랐다. 이른 새벽부터 출가재일 특별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마음을 모으고, 회향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출가의 의미를 되새겼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대표로 순례단은 “부처님께서는 미혹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출가하셨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출가하셨다”며 “저희는 하루하루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겠다. 이 발원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순례단, 온갖 病魔 구도열로 극복 중”

순례단·운영지원단 의료팀 기자간담회

초기에는 장염 증세 단원들 많아
익힌 음식으로 교체하며 감소세
원만회향 목표로 상부상조 나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대변인 종호 스님(사진 오른쪽)과 김명숙 운영지원단 의료팀장이 순례단의 건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장정 중반부에 접어든 상월결사 인도순례, 한때 70여 명이 치료받을 만큼 엄중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 후반부로 향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 때문일까.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이 2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황과 순례단의 의지를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명숙 운영지원단 의료팀장은 “초기 물집과 관절염, 장염 등으로 6~70여 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30여 건 수준으로 치료건수가 감소한 상태”라며 “장기간의 순례 일정으로 인하여 기초체력 저하로 인한 회복이 우려되지만 의료팀이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불자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후문에는 사찰 스님이 아프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 불자들이 안부를 묻는 문자를 수없이 많이 보낸다고 한다. 순례단 스님들은 본인이 아픈 것을 게재하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에게 요청할 정도다. 그만큼 순례단의 순례 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뜨겁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순례 초기 순례단을 힘들게 한 것은 이른바 ‘물갈이’로 일컬어지는 장염 증상이다. 설사와 복통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이들도 다수 나왔다. 하지만 순례단이 회주 자승 스님 지시 하에 끓이고 익힌 음식으로 전체를 교체 후 환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물집과 염좌 등의 문제는 행선 과정과 성지마다 있는 숙소 휴식 등에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변인 종호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께서 무엇보다 순례단의 건강을 많이 걱정한다고 들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출발하기 전부터 OT를 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출발 전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해 파상풍, A형 간염, 장티푸스 등 필수 예방접종을 전원 맞도록 했다. 여기에 70% 수준의 순례단원이 말라리아 예방접종 등도 맞았다. 때문에 순례단에서는 질병 외 식수와 음식, 기온차, 체력 등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순례단의 남은 일정은 24일. 19일차인 27일은 3년간 진행된 국내 순례에서는 회향 시점과 같다. 그렇기에 정신적으로도 지칠만 하지만 오히려 구도열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순례가 중반부에 접어들자 미리 아쉽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김명숙 팀장은 “순례인 만큼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크다. 순례이기에 의료 도움을 받지 않고 순례를 원만회향하겠다는 순례단 내부 의지가 크다”며 “불자로서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부분이지만, 의료인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 지원을 강화해 순례 이후에도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변인 종호 스님은 “회주 스님의 경우 순례단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텐트 주위를 돌면서 순례단의 안전과 건강을 기도를 하신다”며 “회주 스님부터 순례단이 서로 서로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북 돋고 있다. 불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순례단 의료팀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 순례단원을 살피고 있다.

끝으로 종호 스님은 “순례단 개개인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성지와 각 마을에서는 벅찬 감동으로 순례를 하고 있다”며 “순례에 열심히 임하는 만큼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월결사 인도순례 운영지원단 의료팀과 연계하여 2월 21일과 22일 부다가야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팀이 의료봉사를 통해 상월결사 정신을 인도 현지에서 실천했다. 3월 8일과 9일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에서는 동국대 일산병원팀이 연계해 순례단과 지역사회에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동국대, 날란다大 MOU…공동 교육·연구 약속

2월 24일 印날란다대서 협약식
“한국, 인도 불교학 발전 기대”
‘순례’ 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상월결사 인도순례 의미 되짚어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도



(왼쪽부터) 수나이나 싱 날란다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신임 총장이 협약식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와 인도 날란다대학이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사업을 추친키로 했다.

동국대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신임 총장이 2월 24일 인도 비하르(Bihar) 주 라즈기르(Rajgir)에 위치한 날란다 대학(Nalanda University)을 방문해 수나이나 싱(Sunaina Singh) 총장을 만나 양 기관의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으로 도보순례 중인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진명 스님, 황순일 불교대학장, 김용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대학은 △학생·교수·연구자 교류 △공동 교육·연구, 공동 컨퍼런스·심포지엄 등 학술교류 △출판물 및 학술자료 공유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오늘 MOU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 불교학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웅 신임 총장은 “동국대와 날란다 대학의 학술교류가 활발해져 두 대학의 불교학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수나이나 싱 날란다대학 총장은 “아시아와 인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학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국대와 협력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에 앞서 오전에는 날란다 대학 오디토리움에서 ‘불교 전통에서 순례의 중요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됐다.

이번 협약식과 학술대회는 한국불교학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기획한 사업으로,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또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발자취를 좇아 1167km를 도보 순례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담겼다. 순례단 2월 26일 날란다 대학터를 방문해 그 옛날 구법의 열기를 되새겼다.

2부로 총 2부로 진행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불교 순례의 역사와 의미 등을 살펴보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이거룡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교수의 ‘힌두교와 불교전통에서 순례’ △황순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의 ‘순례와 불교의 아시아 전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정덕 스님의 ‘한국 불교에서의 순례’가 발표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광신 홍콩대 불교학연구소 교수의 ‘묘지명을 통해 본 중국의 인도 순례승 의정’ △게오르기오스 할키아스 홍콩대 불교학 연구소장은 ‘북서히말라야의 밀교순례, 순례의 현대적 의미에서 본 시킴(sikkim)’ △브라이언 소머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의 ‘산티아고 순례길, 순례의 서구적 전계’가 소개됐다.

한편, 날란다 대학은 5세기에서 13세기 사이 세계 최초 불교종합대학인 고대 날란다 승원 계승을 위해 2010년 국회 입법을 통해 설립된 공립대학이다. 2014년 9월1일 개교했으며, 대학원 과정으로 현재 32개국에서 온 학생 7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불교학, 심리학, 비교종교학 등 학과가 개설돼 있다. 신성민 기자